

재산·복의 상징... "행운을 드립니다"

'돼지' 관련지명 전국 2천여곳...경전에서는 지혜롭게 묘사

올해년에 듣는 돼지 이야기

올해년 돼지해가 밝았다. 한반도에서 2천여년을 살아오 있는 돼지는 우리 민족과 유별난 친숙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돼지는 우둔하고 더럽다면서도 품에 나타나면 길조로 생각하는가 하면 고사에 단골로 등장하는 상서로운 동물이기도 하다. 강한 번식력으로 다산성을 지닌 돼지는 또 재산과 복의 근원으로 여겨져 집안의 수호신이나 재산의 상징 구실도 했다.

이러한 한민족의 돼지 사랑은 지명에까지 나타나 전국적으로 2천여곳의 땅이 돼지와 관련된 이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이름은 대부분 '돼지굴' '돼지바우' '돼지고개' 등이다.

신화에서도 돼지는 여러 상징성을 지닌 동물로 나타난다. (삼국사기)고구려본기 유리왕편과 (고려사) '고려세계'를 보면 돼지는 국내성과 송악 등 나라의 융성을 도모할, 새 수도의 위치를 알려준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산상왕' 편에서는 자식없는 왕을 위해 왕자를 낳을 여인을 소개하기도 한다. 이처럼 돼지는 하늘이나 신의 뜻을 전하는 사자로 묘사되고 있다.

호랑이 이긴 돼지 왕

돼지와 관련된 설화 가운데는 부처님이 들려준 이야기도 있다. 옛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법을 하고 계셨을 때 이야기이다. 어떤 곳에 5백 마리의 부하를 거느린 돼지왕이 있었다. 어느 날 부하들을 거느리고 험한 고개길을 올라가는



데 맞은 편에서 한마리의 호랑이가 어슬렁 어슬렁 내려오고 있었다. 돼지왕은 마음 속으로 공포를 느끼며 "부하들 앞에서 호랑이를 피해야면 나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이 난관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고민을 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호랑이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네 이놈, 당장 길을 비켜라. 감히 어른이 가는 길을 막다니... 고안지 고." "허허 허..." 아무리 세상이 뒤죽박죽 돌아간다

고 이저경까지 이르렀던 말인가. 호랑이는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고 말했다. "무엇하고 있느냐. 길을 비키라니까." 돼지왕은 부하들 앞에서 최대한 위엄을 차리고 또 한번 큰소리를 쳤다. "길을 가고 싶으면 너희들이 비켜가거라." 호랑이가 점잖게 말을 하고서 계속 걸어가었다. 순간 돼지무리에 긴장이 감돌았다. 한바탕 싸움이 벌어지고 돼지왕이

◀ 강한 번식력으로 다산성을 지닌 돼지는 한민족과 오랜세월 친숙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판권 조정훈 작)

무참하게 쓰러지는 모습이 눈에 선했다. 그런데 갑자기 돼지왕이 길옆 오물덩이로 가더니 몸을 굴러 온 물에 오물을 발랐다. "그래, 싸우자는 건데, 한번 해보자." "어휴, 저놈의 냄새. 내 몸에 묻지 않게 조심해야지." 호랑이가 돼지왕으로부터 멀리 피하며 인상을 지푸렸다. 작은 몸을 잡아먹지 않는 것은 귀중한 이빨을 아까는 까닭인데 냄새나는 돼지를 상대할 호랑이가 아니었다. "너도 다리가 넷, 나도 다리가 넷, 오나라 싸우자. 왜 겁을 먹고 도망가 치는거냐." "네 이놈, 잔소리 말고 빨리 지나가거라. 어휴, 냄새 한번 지독하군" 돼지왕이 의기양양하게 부하들을 이끌고 고개길을 올라갔다. 미천한 것은 상대하지 않는 것이 호랑이다운 호방함이라면 그런 자존심을 찢은 돼지의 지해도 과연 일품이라 하겠다. 호랑이는 호랑이의 싸움법이 있고, 돼지는 돼지 나름의 싸움법이 있는 것이다. (중야합경 제16)

만화 법구경

마음의 장 마음은 들며 흔들리기 쉽고 이 향원

맛있는거 많이 사 오세요. 그래. 진이 어머니 어디가세요? 아! 시장에 좀. 잘 됐네요. 시장인구 은행에 조금 불입하려 하는데 같이가요. 우와... 당첨이다 오백만원! 어머니! 세상에... 500원으로 500만원... 죽석복권 만원어치 주세요. 아니! 명수어머니. 그걸 그렇게 많이 사서... 많으면 많을수록 확률이 높아 지잖아요. 사람일 알 수 없잖아요 진이 얼마도 사 보세요. 자... 싸다 싸! 실린에는 눈이 보배 놓치면 후회 막구! 배화점에서 백만원이 넘는 무스탕 한봉이 단돈 20만원! 어머니! 세상에... 무조건 20만원 이예요? 그럼요. 골라 잡아 20만원 더도 덜도 안받아요. 진이 어머니 돈 가진것 있으세요. 어... 없는데... 안되겠어 적은은 나중에 붓더라도... 명수 어머니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무슨 얘기에요 이렇게 쌀쌀한 필요 여부를 따질것 있어요. 마음이 들며 흔들리기 쉽고 지기 어렵고 억제하기 어렵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 갖기를 할 만드는 사람이 화살을 관계하듯 한다. 이젠 지갑... 순식간에 160만원 번거예요. 아이고 무릎이 왜이리 아프지. 아니 왜그러세요. 진이 어머니 먼저 가세요 난 좀 쉬었다... 지갑이 굉장히 두둑 하던데... 에그머니 수표, 현금! 이렇게 많은 돈이... 이 많은 돈을 잃어 버린 사람은 지금... 아이고 왜이리 가슴이 떨리고... 물에서 잠히어 나와 땅바닥에 던진 물고기 처럼 이 마음은 파닥거린다 악마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악마의 손아귀란 번뇌에 의한 생사윤회의 수레바퀴를 말한다

날(말)맞추기

함께 풀어봅시다

〈기호별〉 ①글씨는 십이동물중 이 동물의 해 ③참나, 마음의 주인 ⑤모체의 태안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 ⑦10지의 하나, 색계·무색계의 4계의 도리를 관하여 일어나는 번뇌를 끊는 지혜 ⑨부처님들 불교에 관한 것을 소재로 그린 그림 ⑪육통의 하나, 남의 마음속을 꿰뚫어 볼수 있는神通한 힘 ⑬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사시로 내걸고 지난해 10월15일 창간한 교계 최고의 신문사 ⑮세계의 중심에 높이 솟아 있는 상상의 산, 현대불교신문 10년에 연재되고 있는 고은씨의 불교소설 제목 ⑰조선시대선, 서산대사의 제자로 임진란때 승병을 이끌고 나라를 구했음 ⑲○○종할 통도사 ⑳출가한 남자선승으로 2백50계를 받아지니다. ㉑이승을 떠나 저승에 다시 태어난 ㉒부처님의 공덕을 기린 노래, 또는 오도송등. 〈세로별〉 ②용과 그름을 판단하여 안다고 하는 상상의 동물, 광화문 앞에 있는 석상. ③사찰을 책임지고 맡아보는 스님 ④반야심경의 한구절, 글자대로 풀이하면, 공이 곧 만유의 본연의 모습임을 뜻한다. ⑥정토삼부경에 있는 부처님. 48

인을 세워 모두가 성불하기를 소원하면서 장구한 수행을 거쳐 성불했을 ⑦유언비어의 속된 말 ⑧살아있는 부처, 고승대덕을 존경하고 찬미하는 말 ⑩불·보살이 중생을 교화하고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양을 여러가지로 변하여 이세상에 나타나는 것. ⑬불·보살의 넓고 큰 자비. ⑭여래의 왼편에 있는 지혜를 맡은 보살 ⑮출가하여 10계를 받아 지나는 나이 어린 남자. ⑰선승으로서 큰 죄를 지은 이에게 승경을 빼앗고 절에서 내쫓는 제도. 일제시대때 체탈도침이라 했음. ⑱사왕천의 주인으로서 수미산을 중심으로 한 사방의 세계를 지킨다는 내신. ㉑4구로 된 계문, 사구분별의 약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정답은 13호 11면에〉

1995 이 기쁜 오늘, 부처님 자비 가득한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목동정수년회관 관장 광우 임직원 일동 서울시 양천구 목동신사거리 6BL1호(4단지) ☎ 646-0181-5	인과선원 주지 정덕 신도일동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657-2 ☎ 993-3706, 907-3706	법안정사 (목동근절) 회주 김효경 포교원장 김현도 신도회장 원숙경 신도회 일동 서울시 양천구 목5동 907-2 ☎ 646-4975, 653-4888	정릉사 (마야합장단) 주지 김법운 합장단·신도 일동 경기도 광명시 광명3동 32-11 ☎ 612-0609	수포사 원장 무구 신도일동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8 ☎ 313-3037, 3060
학림사 조실 송월주 회주 최도원 주지 석덕오 신도일동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번지 ☎ 936-1700, 4100	진관사 주지 진관 대종일동 신도일동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1번지 ☎ 359-8410	신흥사 (청소년 수련원) 주지 오성일 신도일동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상안리 산 42-1 ☎ (0339)57-2695, 3916	남부동명기린정종대광보살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보국각원사 주지 신법인 총무 서대원 대종일동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 98-83 ☎ (0417)61-3545, 62-5332	동산반야회·동산불교대학·동산불교전문연구원 회장 김재일 회원일동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 ☎ 732-1206
동명불원 주지 덕천 신도일동 서울시 송파구 풍납1동 496-3 ☎ 488-7027	관음사 주지 종하 대종일동 신도일동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549 ☎ 582-8609	성불사 주지도원 대종일동 신도일동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368-1 ☎ 400-5915	경수사 주지 김보경 신도회장 이상원 신도일동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목산리 ☎ (0334)72-3668	만의사 주지 정락 총무 심진 노전 응진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중리 140 ☎ (0339)72-6005